

動向分析

要 約

▷ 주요 목차 ◁

- I. 勞動市場
- II. 勞使關係

I. 勞動市場

○ 經濟一般

1992년 3/4분기
 경제성장률 3.1%
 제조업 성장률 3.2%
 199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4.5%

1992년 3/4분기의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둔화와 건설투자 감소 등으로 전분기의 7.8%보다 4.7%포인트 하락한 3.1%를 시현하였다. 그리고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3.2%로서 전산업 평균과 비슷한 성장률을 시현하고 있다. 제조업부문별로 보면 중화학공업은 자동차, 선박, 화학제품 등의 수출호조로 6.7% 성장한 반면 섬유, 완구, 신발 등 경공업부문은 인력부족과 국제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부진으로 생산이 오히려 3.6%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속성장의 결과로 1993년도에는 인력부족이 다소 완화되고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서 고용안정이 보다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한편 1992년 3/4분기에 도매물가는 전년동기대비 3.5%, 소비자물가는 6.1% 상승하였다. 이는 지난 동기보다 각각 1.4%포인트, 3.2%포인트 하락한 결과이며 1992년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말대비 4.5% 증가에 그쳐 1991년의 9.3%에 비해 크게 안정되었다.

○ 雇 傭

경제활동인구 1.3% 증가
취업자 1.1% 증가
실업률 2.2%

1992년 3/4분기에 취업자는 1.1% 증가에 그쳤으나 경제활동인구 역시 전년동기대비 1.3%의 낮은 수준의 증가로 실업률은 2.2%로 계속 완전고용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즉 1992년 3/4분기중 경제의 감속성장 추세에 따라 노동수요증가가 둔화되었으나 노동력증가도 같이 둔화되었고 실직자가 비경제활동인구 화하여 실업문제는 대두되고 있지 않다.

1992년 3/4분기에도 경제활동인구는 그 구성상 고령화 및 고학력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여성화 추세는 더 이상 진전되고 있지 않다. 20~2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기대비 1.0% 증가에 그쳐 증가율이 전년동기의 4.9%보다 크게 낮아졌다. 한편 25~54세의 핵심노동력계층의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기에 비해 0.8% 증가에 머물고 있으나 장기적인 안정증가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한편 5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기대비 6.3% 증가하여 노동력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92년 3/4분기의 연령계층별 실업자 구조를 보면 15~19세가 8.8%, 20~24세가 6.3%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0.7%포인트, 0.2%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는 경기적 요인으로 최근 노동시장의 신규 진입자의 취업애로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산업별 취업자
제조업 4.3% 감소
건설업 4.4% 증가
서비스업 5.4% 증가

1992년 3/4분기의 산업대분류별 취업자 동향을 보면 제조업은 1991년 4/4분기에 시작된 취업자 절대수 감소추세가 더욱 확산되어 전년동기대비 4.3%나 감소하였다. 이는 주로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서의 고용감소의 결과이다. 한편 건설업은 건설경기 진정대책의 효과로 고율증가 추세는 안정되어 가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은 내수경기의 호조로 취업자가 전년 대비 5.4% 증가하여 제조업에서 서비스부문으로의 산업간 노동이동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직종별 취업자
 생산직 3.5% 감소
 사무직 9.5% 증가

1992년 3/4분기의 직종대분류 취업자 동향을 보면 민간소비 지출이 안정되면서 판매·서비스직은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전문·기술·행정관리직과 사무직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9.7%, 9.5% 증가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제조업의 소프트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생산직의 경우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과 건설업의 성장률 둔화 및 생산직의 노동공급감소를 반영하여 전년동기의 3.0% 증가에서 3.5% 감소로 반전되어 1992년 1/4분기 이후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비농부문 고용형태
 상시고 2.5% 증가
 일고 5.6% 감소
 비임금근로자
 4.3% 증가

1992년 3/4분기의 비농부문 고용형태변화를 살펴보면 상시고는 전년동기대비 2.5% 증가한 반면 일고는 건설경기안정으로 5.6% 감소한 결과 노동시장의 고용안정률이 1990년 2/4분기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다. 한편 상시고는 전년동기의 증가율 4.3%보다 낮아져 제조업 생산직 감소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비농부문 비임금근로자 증가율은 4.3%로서 임금근로자 증가율 1.3%보다 크게 높아 경제의 서비스화에 따른 자영업자의 빠른 증가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 賃 金

정액급여 12.2% 증가
 초과급여 9.1% 증가
 특별급여 17.5% 증가
 임금총액 13.1% 증가

1992년 3/4분기중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년동기대비 13.1% 상승한 912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동기의 상승률 17.7%보다 4.6%포인트 감소한 수준인데 특별급여의 높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액급여는 12.2% 증가하여 하향안정이 돋보이고 있다. 한편 초과급여는 전년동기대비 9.1% 증가하여 전년동기의 9.8% 수준에 머물고 있다. 초과급여상승률이 정액급여 상승률보다 낮은 이유는 고임금 추세가 지속되면서 사용자는 초과근로를 되도록 억제하고 있고 생산직근로자 역시 소득상승으로 초과근로를 기피하여 초과근로시간 자체가 감소한 결과이다.

직종별 임금
 생산직 764천원
 사무직 1,006천원

1992년 3/4분기의 직종별 임금은 생산직이 764천원, 사무직이 1,006천원으로 생산직/사무직 임금비율은 75.9로서 전년동기의 상대임금비율 74.1에 비해 직종간 임금격차의 완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생산직의 인력부족현상에 따른 노동시장적

요인과 노동운동이 생산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사관계 요인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는 현상이다. 한편 사무직 임금이 1992년 3/4분기에 최초로 100만원을 넘어서고 있음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산업별 임금

제조업 13.9% 증가
건설업 15.9% 증가
전기·가스·수도업
5.2% 증가

1992년 3/4분기의 산업별 임금은 광업, 건설업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19.0%, 15.9% 상승하여 이 부문의 인력부족 현상에 따라 가장 높은 임금상승률을 시현하고 있다. 한편 공공부문인 전기·가스·수도업은 전년동기대비 5.2% 증가에 머물러 총액 임금제의 임금안정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부문으로 보인다.

**사업체규모간
임금격차 축소**

1992년 3/4분기의 규모별 임금상승률을 보면 10~29인 규모의 영세기업은 14.7%,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는 11.6%로 나타나 2/4분기에 이어 계속 영세기업과 대기업과의 임금수준의 격차가 축소되고 있다. 즉 500인 이상 대기업과 10~29인 규모 기업의 임금격차는 작년 3/4분기의 73.1에서 75.1로 그 격차가 축소되었다. 이는 대규모 기업은 총액임금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반면 소규모 기업에서는 인력부족 및 한계기업의 도태로 높은 임금인상이 시현되었기 때문이다.

○ **勤勞時間**

월근로시간 2.1% 감소
정상근로 1.8% 감소
초과근로 3.7% 감소

1992년 3/4분기중 월평균 근로시간은 203.4시간으로 전년동기 대비 4.3시간 감소하여 1989년 이후 근로시간의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주당 근로시간은 3/4분기중 전산업 평균이 46.8시간, 제조업은 47.7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 10월 이후 300인 이상 기업의 법정근로시간 단축효과가 이미 현장에서 반영되었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근로시간단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II. 勞使關係

○ 賃金交渉

1992년 100인 이상
사업장
타결임금인상률 6.5%

1992년 임금교섭이 타결된 100인 이상 사업장의 타결임금인상률은 6.5%로 나타났다. 1992년 임금교섭은 정부의 총액임금제 정책으로 공공부문은 상반기에 임금교섭이 100%(106개) 완료되어 조기 임금교섭타결을 주도하였으며, 민간부문은 중점관리 대상업체 674개사 중 673개사에서 타결되어 총액임금 대상사업장에서는 99.9%의 교섭타결이 이루어졌다.

○ 勞使紛糾

1992년
분규건수 235건
해결건수 233건
쟁의발생건수 27.8%
감소
노동손실일수 54.3%
감소

1992년의 노사분규는 총 235건이 발생하여 233건이 해결되었고 2건이 진행중이다. 이는 1991년에 비해 단 1건이 증가한 수치로서 안정적 노사관계가 전년에 이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분규의 선행지표인 쟁의발생신고는 1,245건으로 전년대비 27.8% 감소하였다. 한편 전당 분규참가자수가 작년의 748명에서 445명으로 크게 감소하여 평균 분규지속일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손실일수는 전년동기대비 54.3% 감소한 152만일을 기록하고 있다.

1992년의 노사분규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임금인상 57.0%, 단체협약 20.9%, 체불임금 11.5% 순으로 나타나는데 전년에 비해 체불임금관련 분규가 급증한 것이 특징적이라 하겠다. 체불임금관련 분규가 광업, 운수업,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산업구조조정과 경제여건의 악화로 광업과 중소제조업의 휴·폐업 및 도산이 많았기 때문이다.